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 임연신
교수 현온강

Dept. of Consumer, Child, and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Master : Ren Ran-Xin

Professor : Hyun On-K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fundamental bases of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by comparing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who share the same cultural roots but live in societies with different ideology and values. Total of 314 mothers with children aged from three to six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160 Korean mothers from two cities in Korea and 154 Korean-Chinese mothers from two cities at Yanbian in China. Parental Satisfaction Questionnaires by Hyun (1994) and Child Rearing Practice Measu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ere used to measur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practice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Chinese mothers seeme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roles as parents than Korean mothers. Additional analyses with socio-economic variables reported that both Korean and Korean-Chinese mothers satisfaction about spousal support were higher and their role conflicts were reduced

Corresponding Author: On-Kang Hyun, Departmen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Ku
Inch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1 Fax: 82-32-865-5228 E-mail: okhyun@inha.ac.kr

* 이 연구는 2001년도 인하대 연구진흥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when the household income was higher. Interestingly, most Korean-Chinese mothers reporte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spousal support whereas only highly educated Korean mothers seemed to be satisfied with spousal support. In addition, for child-related variables, Korean and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were not affected by their childrens gender or age but when they thought their childrens temperament was difficult, their role-conflict tended to increase.

주제어(Key Words): 부모역할만족도(parental role satisfaction), 양육태도(child-rearing practices), 비교문화(cross-culture), 연변 조선족(Yan Bian Korean-Chines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의 양육행동을 통한 부모역할수행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그들이 태어난 가정환경 및 성장하면서 접한 교육과 사회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은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게되어 아동의 성격형성과 행동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한국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부모의 역할에 점차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공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일차적인 양육자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 역시 내적·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부모로서의 심리적 만족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박성연·이숙, 1990; 이원영, 1983; 한송자, 1990)는 1980년대부

터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 등과 같은 복합적인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강희경, 1994; 도현심·김지신, 1997; 문혁준, 2001; 양연숙, 1997; 현온강, 1994)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현온강·조복희(1994)의 연구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각 변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도 일관적이지 않았다(문혁준, 2001). 중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李幼輝·宋志寧·吳敏, 2001; 林磊 등, 1995; 桑標, 1991; 陶沙, 1994; 張麗華, 1997)와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극히 미비하거나 초기계단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조선족 어머니에 대한 자녀양육태도나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같은 유교문화의 유산과 동일한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념과 사상이 다른 사회환경과 제도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어머니와 연변 조선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배경변인에 따른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연변 조선족 부모간의 차별성과 동질성을 발견 검토함으로써,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들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 조선족 어머니에게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아동양육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앞에 닥쳐올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민족의 향후 아동양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필

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비교문화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어머니 관련 변인(연령, 학력, 월소득)과 비교문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아동 관련 변인(성별, 연령, 기질)과 비교문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2-1.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비교문화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 관련 변인(연령, 학력, 월소득)과 비교문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 관련 변인(성별, 연령, 기질)과 비교문화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연변 조선족에 대한 국내 연구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은 19세기 중엽부터 조선반도에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살길을 찾아 중국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그들은 주로 “간도”라고 일컫는 중국의 동북지역 즉,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에 정착하여 편벽한 땅에 황무지를 일구고 벼농사를 하면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보통 중국의 현대 조선족 집중 거주지 형성의 시발로 여기고 있다(한옥숙, 1998).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1910년 일제의 “조선합방” 이후이며

경제적인 원인 뿐 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침략에 반항한 항일투사들과 문화계몽운동에 종사하였던 지식인들의 조국광복을 위한 정치망명적 이주도 적지 않았다(정신철, 2000). 현재,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56개 민족 중에서 12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삼성에 주로 집거거주하고 있다. 1998년의 교육조사를 위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인구는 약 85만 555명(서효성, 2000)으로서 1990년의 중국인구 통계조사 이후 오늘날까지 증가된 수를 고려하면 현재 중국 조선족의 수는 약 200만명 선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 전부터 국내의 연구자들은 150년이란 이주 역사과정을 거쳐 중국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잡은 연변조선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 경제, 교육, 문화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왔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대 한중수교(韓中修交)를 맞아 한국과 중국이 서로간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지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연변조선족을 상대로 학회지와 논문집에 발표된 아동과 가정관련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 수가 매우 미비하다. 주로 한국과 연변조선족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비교연구와 실태조사로 이루어 졌는데 그 중에는 이주민으로서의 민족정체감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중섭·신승철, 1994), 가족기능 비교(신승철·이중섭·이호영, 1994), 가족 생활과 육아방식(조복희·이재연·윤종희, 1993),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양육행동(박성연·김미경·도현심, 2000), 청소년의 문화접변과 적응(박성연·도현심, 2001) 등 민족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몇 편 안되는 연구들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조복희·이재연·윤종희(1993)의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는 전통적인 육아방식과 가족생활실태를 주제로 잡아 연변조선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민족 동질성을 파악하고 이후

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연구가 단지 실태조사에만 국한되고 구체적인 관련 특성에 따른 연구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로 조선족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려는 연구(박성연·김미경·도현심, 200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어머니의 문화접변 정도와 양육행동, 청소년의 사회화와 그들이 겪는 갈등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는 청소년 자녀의 건강, 발달과 적응에 관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단 몇 편의 연구들로 우리가 연변 조선족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세찬 물결속에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연변조선족들의 문화와 생활양식,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수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한국문화도 아니고 중국문화도 아닌 조선족문화를 창조해 가는 연변조선족의 자녀 양육관, 부모역할관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 첫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부', '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역할이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수행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특징적 행동이라고 Nye와 Berado(1976)는 정의하였다(현은강, 1994 재인용). 따라서 부모역할이란 한 개인이 "부" 혹은 "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특징적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모기의 전환: 문제와 만족감」이라는 Russell (1974)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부모됨도 인간발달단계의 한 국면이며 이는 정상적인 위기이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곽정인, 1999).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부모됨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만족, 태도와 신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역할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Chilman, 1980)되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소를 경감시켜 성인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 모,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문혁준, 2001).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을 만족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연구(강희경, 1994; 곽정인, 1999; 양연숙, 1997; 이해란, 1984; 현은강, 1994; 현은강·조복희, 1994)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문혁준, 2001). 연변 조선족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본 연구가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중국 내에서도 부모 역할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 문화에 대한 국외 연구를 통해 추론해 보건데 현재 중국은 부모역할 만족도 및 전체 부모역할 개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겪고 하고 있는 듯 하다. 즉 구세대 부모들은 비교적 엄격하게 많은 자녀들을 키워왔으나 현대 중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외동아이를 둔 가정의 증가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양육책임감과 부모역할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Dunn, 1991; Ho & Kang, 1984; Honig, 1978).

지금까지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변인들로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형태, 가정소득과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 등으로 구분하였고 자녀와 관련된 변인들은 주로 성별, 연령, 출산순위, 건강, 기질, 원하던 출산여부 등과 같은 변인들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변인들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문화에 따라서 각 변인들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양상도 다를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부모역할만족도에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월수입과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이는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및 성격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Lerner, 1986; Saavedra, 1980; 박은정, 1996; 연미희, 1998; 천희영, 1992). 또한,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활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서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문혁준, 1998; 이숙, 1987; 신정숙, 2000).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이론모형을 발표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과 적대, 자율과 통제라는 두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이유는 애정과 통제가 모든 인간행위와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두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Maccoby & Martin, 1983; 박은정, 1996).

한국의 정원식(1989)은 양육태도의 유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나누었고 박성연·이숙(1990)은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 과보호,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등 7가지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원영(1983)은 Schaefer의 양육태도를 자율-통제, 애정-적의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한송자(1990)는 애정-거부, 자율-통제, 민주-권위적, 의도적 무관심-과잉보호, 일관성-비 일관성의 5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桑標(1991)는 중국과 일본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에서 양육태도의 유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문화간의 비교를 하였고 林磊 등(1995)은 극단형, 전제형, 익애형, 성과 압력형, 적극형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몇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매우 유사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서양 문화권 국가와의 비교문화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 부모들은 자식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나 그 표현에 있어서 엄격하고 자녀의 행동을 더 많이 통제하는 편이었다(Chiu, 1987; Yee,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의 성별,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을 들 수 있으며 가정환경변인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월수입과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서울·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200명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공립·기관·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6세의 자녀를 둔 조선족 어머니 200명이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온강·조복희(1994)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총 48개 문항의 척도로서 다섯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 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만족'(11문항), 둘째, 부모-자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 관계'(10문항), 셋째, 배우자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지원

에 관한 '배우자의 지지' (10문항), 넷째,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반영하는 '부모역할 갈등' (11문항), 다섯째, 자녀들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보상과 관련된 '자녀의 지지' (6문항)이다.

척도에서의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 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정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역산처리를 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로 알아본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 연변 조선족 모두 .83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chaefer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박흥선(1998)이 번역하여 사용한 질문들 중 3세에서 6세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에게 적합한 문항들만을 골라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이나 칭찬 등의 표현을 나타내는 "애정적 태도"(3문항), 자녀행동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비평 등 거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부적 태도"(3문항), 자녀의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간섭하고 통제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통제적 태도"(4문항)의 3개 영역이 있다. 각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아니다"(1점), "아닌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순으로 되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알아본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 연변 조선족 각각 .46, .42 로 요인별 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소 낮은 편이었다.

3. 연구절차

한국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과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한 유치원에서 3세부터 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 각각 20명씩을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과 응답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표기를 각 문화집단별 맞춤법에 맞게 조정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 서울·인천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에게 총 200부와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국립·기관·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에게 총 200부를 교사를 통해 배부하고 어머니가 작성토록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164부(82%)이고 중국에서 회수된 질문지는 총 162(81%)부로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한국 4부, 중국 8부)를 제외하고 한국 총 160부(80%), 중국 총154부(77%)를 본 연구의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dow용)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알아보고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와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한국의 경우 31세~35세(55%)가 과반수였고, 36세~40세(30%)가 다음으로 많았으나 연변 조선족 어머니는 31세~35세(64%)가 제일 많았고 다음은 30세 이하(22%) 순이어서 전반적인 연령이 한국 어머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한국 어머니와 연변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집 단	한 국(n=160)		연 변(n=154)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어	연 령	30세 이하	20	12.5%	34	22.1%
		31세-35세	88	55.0%	98	63.6%
		36세-40세	48	30.0%	15	9.7%
		41세 이상	4	2.5%	7	4.6%
	계	160	100.0%	154	100.0%	
머	학 령	초 졸	3	1.9%	2	1.3%
		중 졸	5	3.1%	10	6.5%
		고 졸	95	59.4%	46	30.1%
		전문대졸	10	6.3%	52	34.0%
		대 졸	46	28.8%	41	26.8%
		대학원졸	1	.6%	2	1.3%
	계	160	100.0%	153	100.0%	
직 업	비취업	123	76.9%	14	9.1%	
	취 업	37	23.1%	140	90.9%	
	계	160	100.0%	154	100.0%	
니	월수입	100만원미만(500위안 미만)	6	3.8%	4	2.6%
		100-150만원(500위안-1,000위안)	30	18.8%	16	10.6%
		151-200만원(1,001위안-1,500위안)	57	35.6%	66	43.7%
		201-250만원(1,501위안-2,000위안)	30	18.8%	48	31.8%
		251-300만원(2,000위안 이상)	11	6.9%	17	11.3%
		300만원이상	26	16.3%		
	계	160	100.0%	150	100.0%	
아	성 별	남	84	52.5%	80	51.9%
		여	76	47.5%	74	48.1%
		계	160	100.0%	154	100.0%
	연 령	3세	21	13.1%	45	29.2%
		4세	62	38.7%	34	22.1%
5세		66	41.3%	53	34.4%	
6세		11	6.9%	22	14.3%	
계	160	100.0%	154	100.0%		
기 질	까다로운 편이다	33	20.6%	36	23.4%	
	순한 편이다	127	79.4%	118	76.6%	
	계	160	100.0%	154	100.0%	

조선족 어머니들 모두 대부분 고졸, 전문대졸, 또는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졌는데(한국 94.5%, 조선족 90.9%) 한국 어머니의 경우 고졸(59%)이 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은 전문대졸(34%), 고졸(30%), 대졸(27%) 순으로 분포를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경우 조선족들은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기에 중국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 국가인구통계의 숫자에 의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의 매 1만 명 가운데 대학수준 소유자 숫자를 보면 전국 평균수

준은 78명이고 소수민족 평균은 61명인데 비해 조선족은 227명에 달한다. 한편, 한국은 표집대상을 중·하류층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한국은 비취업주부가 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변조선족은 취업주부가 대부분이며(91%) 주로 전문직과 사무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한국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이전 보다 많이 향상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화국을 창건하면서부터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또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혼인 등 방면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종사하는 직종도 다양하였다. 가정 월수입에 있어서 한국가정인 경우 150~200만원(36%)정도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01~150만원과 201~250만원(19%)정도가 많았다. 연변조선족 가정은 1,000~1,500위안(44%)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1,501~2,000위안 정도(32%)가 많았다. 두 나라의 기준 환율은 144.2로 중국의 1,000위안은 한국에서 약 144,200 정도이다. 참고로 1999년 1인당 국민 총생산액(GNP)은 한국이 8,581 달러, 중국이 860

달러였다.

아동의 성별은 한국과 연변조선족 모두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도 한국과 연변 조선족 모두 5세(한국 41%, 조선족 34%)가 가장 많았다.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의 기질에 대하여 별도의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79.4%,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76.6%가 자녀의 기질을 “순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1)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비교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보기 위한 평균, 표준편차와 문화집단간의 차이를 본 t-test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한국과 조선족 어머니 모두 하위영역별로 일반적인 만족,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부모역할 갈등 순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정도는 문화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역할 갈등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 즉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 지지, 자녀의 지지, 일반적인 만족 영역에서 연변조선족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부모역할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영역	범위 (최소값, 최대값)	한국(n=160)		t값
		평균(표준편차)	연변(n=154) 평균(표준편차)	
전체 만족도	(1.00, 4.00)	3.06(.33)	3.36(.26)	
일반적인만족	(1.00, 4.00)	3.56(.34)	3.80(.25)	13.63***
부모-자녀관계	(1.00, 4.00)	3.21(.42)	3.56(.36)	21.78***
배우자의 지지	(1.00, 4.00)	2.82(.66)	3.37(.56)	20.59***
부모역할 갈등	(1.00, 4.00)	2.33(.42)	2.30(.47)	.45
자녀의 지지	(1.00, 4.00)	3.04(.54)	3.40(.48)	14.68***

***p<.001

* 전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역할 갈등 영역의 문항들을 역산처리하였음.

2)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부모 역할 만족도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먼저 일원변량분석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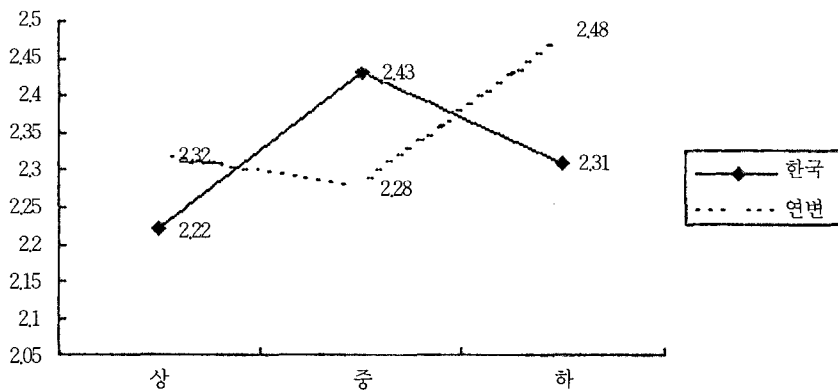
원변량분석으로 비교문화 집단과 어머니 관련변인간의 상호작용을 각각 알아보아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고졸 이하”와 “대졸이상”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역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의 지지와 자녀의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

<표 3> 어머니 관련 변인(연령, 학력, 월수입)에 따른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비교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 (n=314)

	연령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단과 연령간 상호작용	학력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단과 학력간 상호작용	월수입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단과 월수입간 상호작용
일반적 만족	35세이하 36세이상	3.67(.30) 3.69(.29)	.264	.334	고졸이하 대졸이상	3.63(.34) 3.72(.29)	.601	.512	상 중 하	3.76(.27) 3.71(.32) 3.59(.34)	3.007	.541
부모 자녀 관계	35세이하 36세이상	3.38(.38) 3.41(.39)	.426	.277	고졸이하 대졸이상	3.32(.44) 3.45(.40)	.854	3.747	상 중 하	3.39(.39) 3.46(.41) 3.26(.43)	.104	.992
배우자의 지지	35세이하 36세이상	3.10(.59) 3.10(.62)	.009	.091	고졸이하 대졸이상	2.94(.68) 3.24(.62)	5.372*	4.172*	상 중 하	3.32(.50) 3.17(.68) 2.88(.66)	5.917**	.622
부모 역할 갈등	35세이하 36세이상	2.30(.43) 2.33(.47)	.213	1.246	고졸이하 대졸이상	2.32(.45) 2.30(.43)	.002	.703	상 중 하	2.25(.53) 2.32(.41) 2.34(.44)	1.142	3.350*
자녀의 지지	35세이하 36세이상	3.18(.52) 3.33(.47)	3.698	.125	고졸이하 대졸이상	3.11(.58) 3.33(.47)	5.255*	.342	상 중 하	3.24(.53) 3.32(.49) 3.07(.57)	.051	.993

* p <.05 ** p <.01 *** p <.001



<그림 1> 비교문화집단과 월수입간의 상호작용효과

를 보여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배우자의 지지와 자녀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경향을 나타냈다. 비교문화 집단과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배우자의 지지 항목에서만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배우자의 지지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변 조선족의 경우 학력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높은 배우자의 지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의 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한국과 연변조선족 가정 모두 월수입이 높을 수록 배우자 지지도가 높았다. 한편 부모역할갈등 항목에서는 비교문화집단과 월수입에 따른 흥미로운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그림 1〉) 한국 어머니들은 월수입이 중간 정도일 때 부모역할갈등을 더 경험하나, 연변조선족 어머니들은 월수입이 낮을 때 부모역할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 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아동 관련변인에 따른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부모 역할 만족도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ANOVA로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를 알아보고, 비교문화 집단과 아동 관련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다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이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들의 어머니들보다 부모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4.282$ $p<.05$) 비교문화집단과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

1)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전반적 경향과 문화집단간 차이를 본 t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 모두 양육태도 하위영역에서 애정적 태도를 가장 많이 보이고 다음으로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 순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어머니가 연변 조선족 어머니보다 자녀의 양육에서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교문화집단과 어머니의 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 관련변인에 따른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먼저 일원변량분석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양육태도를 알아보고, 이원변량분석으로 비교문화 집단과 어머니 관련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각각 알아보아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비교문화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표 4〉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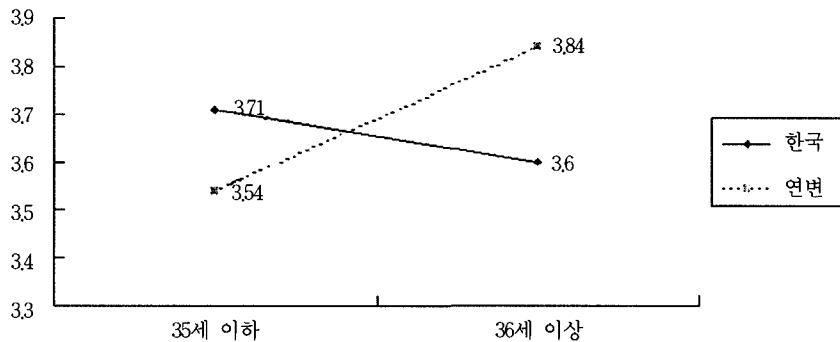
영역	범위 (최소값, 최대값)	한국(n=160)		연변(n=154)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값
애정적 태도	(1.00, 5.00)	4.20(.57)	4.20(.60)		.472
거부적 태도	(1.00, 5.00)	3.60(.58)	3.06(.81)		21.73***
통제적 태도	(1.00, 5.00)	3.71(.48)	3.58(.60)		2.985*

* $p<.05$ *** $p<.001$

<표 5> 어머니 관련 변인(연령, 학력, 월수입)에 따른 양육태도 및 비교문화집단과의 상호작용 효과 (n=314)

	연령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 단과 연령간 상호작용	학력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 단과 학력간 상호작용	월수입	평균 (표준 편차)	F값	비교문화집 단과 월수입간 상호작용
애정적	35세이하 36세이상	4.20(.58) 4.19(.58)	.024	.882	고졸이하 대졸이상	4.10(.61) 4.29(.53)	9.863**	.442	상 중 하	4.37(.50) 4.22(.55) 4.08(.62)	6.836**	1.505
거부적	35세이하 36세이상	3.29(.76) 3.50(.71)	1.153	.662	고졸이하 대졸이상	3.41(.71) 3.26(.79)	.002	1.009	상 중 하	3.39(.74) 3.18(.78) 3.55(.66)	.828	.780
통제적	35세이하 36세이상	3.62(.56) 3.74(.50)	3.317	4.230*	고졸이하 대졸이상	3.62(.56) 3.67(.53)	2.242	.451	상 중 하	3.70(.54) 3.64(.56) 3.63(.54)	.569	.225

* p <.05 ** p <.01 *** p <.001



<그림 2> 비교문화집단과 어머니의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

통제적인 양육태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그림 2>) 35세 이하의 어머니인 경우 한국이 연변조선족 보다 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36세 이상의 연령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연변조선족 어머니가 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제적인 태도가 감소하지만 연변조선족의 경우 어머니 연령의 증가에 따라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하위영역별로 비교하여 본 결과,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과 연

변조선족 어머니 모두 학력이 높을 수록 아동에게 더 애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한 결과 애정적인 양육태도에서 월수입이 낮을 수록 덜 애정적이고 월수입이 높을 수록 아동에게 더 애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밖에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비교문화집단과 학력이나 월수입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비교문화집단과 아동 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 관련변인에 따른 한국과 연변 조선족 어머

니들의 양육태도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ANOVA로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를 알아보고, 비교문화 집단과 아동 관련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성별과 기질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에서 애정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 모두 4세 이하 아동에게 보다 더 애정적으로 대하지만 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하여서는 더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었다. 비교문화집단과 아동의 성별, 연령, 기질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3세~6세 사이의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어머니와 아동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대한 문화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나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 지지, 자녀의 지지만족도에서 연변조선족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문화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경우 한국 어머니에 비하여 대다수가 취업 상태이고 사회활동에 종사하므로 일정하게 자기 성취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어머니들 보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 어머니와 연변조선족 어머니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 수록 부모역할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 수록 부모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머니들이 느끼는 부모 역할 만족도는 두 나라 모두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강희경, 1990; 문혁준, 2001; 양연숙, 1997; 이해란, 1984; 현은강, 1994; Chilman, 1979). 그러나,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은 학력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높을 경우 배우자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경우 월수입이 낮을 때 부모역할갈등을 겪었지만 한국 어머니의 경우 오히려 월수입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중간 수준일 때, 부모역할갈등을 더 경험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두 나라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애정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거부적인 태도와 통제적인 태도에 있어서 한국의 어머니가 연변조선족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 한국의 경우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보다 비취업모가 많아서 자녀를 어머니의 대리만족으로 여기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조선족 어머니들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넷째, 두 나라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아동에게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더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연령이 많을수록 거부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문혁준, 1998; 박은정, 1996; 연미희, 1998). 다만 한국 어머니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연변조선족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통제적인 태도를 보여 문화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련하여 연변조선족의 경제적 수준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탓으로 한국에서의 표집대상을 중 하류로 통제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반적인 사회계층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표집 지역대상이 연변조

선족자치주내의 취학전의 유아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아동연령 범위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어머니를 위한 질문지는 자녀를 통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답안지의 솔직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연변에서의 경우, 이와 같은 조사방법(설문지 응답)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반응을 제대로 했을 지의 의문도 남아있다.

셋째,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직업특성에서 취업유무가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한국은 비 취업이 77%를 차지하고 연변조선족은 취업이 대다수여서 비교문화집단간에 취업비율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서 어머니의 직업형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문항수가 적은 이유에 기인하나 궁극적으로는 문항간 합치도가 떨어지는 경향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 어머니에게 부모역할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올바른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이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같은 민족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 몸담고 있는 두 나라 어머니에 대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문화집단간의 비교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중국 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의 연구에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중요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로도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취업유무, 직업형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역할만족도 및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족 부모들의 해외진출이 잦아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편부모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편부, 편모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 및 부모역할갈등에 대한 새로운 척도 개발이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정인(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3.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7.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 박성연, 도현심(2001).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 접변유형과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23-136.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은정(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어머니

- 의 양육태도 현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선(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효성(2000). 연변조선족 현황에 대한 분석. *조선민족교육과학잡지*, 2000(4), 38-41.
- 신승철, 이종섭, 이호영(199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의 가족 기능 비교.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234-244.
- 신정숙(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1997).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대안가정학회지*, 35(3), 139-150.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36(7), 111-122.
- 원정선(1990). 부모 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숙(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섭, 신승철(1994). 한국과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비교연구.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245-267.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신철(2000). 중국 조선족 그들의 미래는... 서울: 신간사.
- 정원식(1989).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양육방식의 실태조사. *대안가정학회지*, 31(1), 35-44.
- 천희영(1992).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송자(1990).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인지양식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옥숙(1998).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의 유치원교사 교육관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 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개발. *대안가정학회지*, 32(1), 103-11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L. Hoffman and L. W. Hoffman(Eds.). *view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illman, C. S. (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 children. *Family Relations*, 29, 339-345.
- Chiu, L. H. (1987). Child-rearing attitudes of Chinese, Chinese-American, and Anglo-American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2, 409-419.
- Dunn, S. W. (1991, February). For China, it's the year of the spoiled children. *New York Times*, p.5.
- Ho, D. Y. F. & Kang, T.K. (1984). Intergenerational comparisons of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 Hong Kong.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04-1016.
- Honig, A. S. (1978). Comparisons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Japan and in the Republic of China: A personal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8(1-2), 6-32.
- Lerner, R. M., Lerner, J. V., Windle, M., Hooker, K, Lorenz, K., & East, P. L.(1986). Child and adolescents in their contexts: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Hetherington, E. M.(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V*. PP1-102, New York: Wiley.
- Nye, F. I. & F. M. Berado(1976). *The family: its structure and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 Russell, C. S.(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 263-276.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re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14-54.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26-235*.
- Yee, J. H. Y. (1983). Parenting attitudes, accultur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the Chinese-American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 4166B.
- 桑 標(1991). 親子關係和幼兒性格發展的中日跨文化比較. 和同師大心理系研究論文.
- 張麗華(1997). 父母的教養方式和兒童社會化發展研究綜述. 遼寧師範大學.
- 李幼輝, 宋志寧, 吳敏(2001). 少年兒童行為問題與父母養育態度關係研究. 集文堂.
- 陶 沙(1994). 3歲~6歲兒童母親的養育方式及其影響因素的研究. 人大報刊復印資料: 心理學.
- 林磊 等(1995). 幼兒家庭教育方式的類型及其行為特點. 東北師大心理系研究論文.

(2002년 5월 31일 접수, 2002년 11월 4일 채택)